

“영화갈증 해소” “관람객 싹쓸이”

나주문예회관 CGV 영화상영 한달 반... 찬반논란 가열

국내 최대규모의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가 최근 개봉영화를 상영하는 나주문화예술회관에 지난 6월15일부터 이달말까지 누적 관람객수가 35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이 싸고 가까운 곳에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지만 일각에서는 대형 영화관이 농촌지역 영화 관람객까지 싹쓸이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3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15일부터 매주 주말 하루 2차례씩 개봉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나주문화예술회관에 지난 27일까지의 누적 관람객이 모두 3500여명에 달했다.

나주시와 CGV는 지난달 약정을 통해 ▲CGV는 최신 개봉작을 연 120일 범위 내(매주 토·일요일, 1월 2회)에서 상영하고 ▲오는 12월까지 7개

월간 시범 운영하며 ▲편당 5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카드는 중복할인이 가능하며, 매달 2편 이상의 영화를 CGV 개봉과 동시에 개봉하기로 한



나주문화예술회관을 찾은 영화 관람객들이 개봉작 상영을 기다리고 있다.

바 있다. 문화행사 위주로 운영해오던 예술회관에 돌비와 서라운드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지난봄 내부 시설의 리노

벨링을 통해 편의성을 높인데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람료로 인해 학생과 가정주부들이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대형 영화관이 농촌지역 관람객들을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에 지자체가 휘둘리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모(54)씨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광주에 가면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반 가격에 나주에서 개봉작을 상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1998년도 개관 이후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연 10여편의 영화 상영을 해온 나주문화예술회관을 주말에만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정기적인 공연장 활용으로 이용률 극대화 및 한층 더 강화된 문화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무궁화 닳은 부용화의 자태

담양군 용면 도로변에 핀 부용화가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무궁화를 닳은 부용화는 다년생으로 번식력이 좋아 꽃길 조성에 안성맞춤이며 해독·해열 효능이 탁월해 약재로 인기가 높다. /담양=정재근기자 jgg@

장성군 29가구 귀농·귀촌 사례집 발간

전남지역 ‘귀농 1번지’ 장성군이 귀농·귀촌 사례집(사진)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장성에 정착한 귀농 27가구와 귀촌 2가구 등 모두 29가구의 귀농·귀촌 계기와 준비 과정, 정착 단계까지 다양한 실제 사례가 생생하게 담겨있다.

또한 이주에 틈이 될 수 있는 준비요령 뿐만 아니라 주의사항과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소개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군 귀농·귀촌상담센터 소개와 귀농·귀촌 지원 사업내용을 함께 실



어 행정적 지원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장성군은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귀농·귀촌 사례집을 소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061-390-7539)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장흥군 4일 신리 갯벌서 ‘개매기 행사’

장흥군은 4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대덕읍 신리 앞바다 갯벌에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개매기 행사’와 참꼬막 잡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리 앞바다의 개매기는 물길이 4km, 어장면적은 1000ha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신리 개매기 체험은 다른 지역과 달리 물고기를 인위적으로 방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진행되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주로 잡히는 물고기는 송어이며 돔·낙지·게·장어 등도 가끔씩 잡힌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장흥군은 고기를 잡지 못한 사람을 위해 자연산 참꼬막 잡기 체험을 덤으로 제공해 즐거움을 배가시킬 계획이다. 개매기 체험 입장료는 성인 8000원, 10세 이하 어린이와 70세 이상 어르신은 5000원이다. 참가 문의는 장흥군청 해양수산과(061-860-0412)와 대덕읍사무소(860-0603)로 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살아 숨쉬는 갯벌과 잘피 군락지에서 펼쳐지는 신나는 고기잡이로 생활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마음껏 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전력다 사상에 따른 전기 에너지 비상상황인데도 농어촌 지역의 농사용 전기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장흥지사에 따르면 매년 농어촌 지역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으로 농사용 전기 사용 농가와 사용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흥지역의 경우 지난 2008년 7450호 이던 농사용 전기 사용 농가가 2013년 6월 말 현재 9100호로 늘었고 전기 사용량도 같은 기간 5616만 kWh에서 1억535만 kWh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같이 농사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농어업 환경이 단순한 1차 미역재배 위주에서 기계화와 특용작물, 축양 및 축산업 중심의

2·3차 체제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차 농업은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요금도 농사용 전기 사용량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반용, 주택용, 산업용의 경우 kWh당 요금이 평균 100원대인데 반해 농업용은 21원과 38원으로 최대 4배 가까이 저렴해 농어업 종사자들이 전기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에너지 소비절약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15% 절전운동은 일선 지자체 등의 공공시설 확충사업으로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공 시설물의 무분별한 확충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

급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농작물 수확기 맞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영암군이 농작물 수확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영암군은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와 먹이부족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잦아지면서 농작물 피해 민원이 급증해 방지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방지단은 출몰·피해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해 포획할 예정이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전북

단신

부안 봉래계곡에 울려 퍼진 해남 우수영 풍류놀이

전라우수영들소리보존회·지역예술인 30여명 참여 재연 행사



해남과 부안지역 문화인들이 지난 28일 풍류놀이를 재연하고 있다.

해남의 옛 풍류문화가 최근 부안군 내변산 봉래계곡에서 재연돼 관심을 모았다.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봉래계곡에서 ‘전라우수영 풍류극, 봉래계곡에서 매창을 품다’란 주제로 해남 풍류놀이 재연했다. 이번 행사는 전라우수영들소리보존회(회장 박귀만) 회원을 비롯한 예술인 30여 명이 마련했다.

풍류놀이는 조상들이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문화예술로 심신을 수양하고 교류하던 미풍을 말한다.

부안 내변산 봉래계곡은 조선시대 풍류문화의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홍길동전 작가로 유명한 허균을 비롯해 황진이와 쌍벽을 이루는 여류시조 문인 매창, 생육신 중의 한 사람인 김시습, 실학의 시조인 반계 유형원, 조선 말기 서화가 동초 김석근 등 문인서화가들이 풍류놀이

를 즐겼던 곳이다.

풍류놀이 재연 행사에선 전라우수영들소리보존회 회원과 부안군 문화예술인들 간 교류도 이루어졌다.

해남군에선 우수영들소리 보유자 박신환(92) 옹과 박주방을 비롯해 소리꾼 이병재, 우수영강강술래 문화재인 차영순·정순영, 부녀농요 문화재인 이인자, 한국무용가 김이정, 대금 연주가 한홍수 등이 참여했다. 부안군에서는 시조창인, 문인 협회, 새만금예술단체 등 문화예술인이 함께했다.

풍류놀이 재연행사를 기획한 변남주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옛 풍류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며 “다음에는 담양의 식영정과 해남 대흥사 계곡 등에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정재용기자 jyy0681@

서울 학교급식 공급 고산농협·남원원협 선정

전북도는 서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산지공급업체로 고산농협(친환경쌀)과 남원원협(감자·양파 등 원예농산물)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공급 업체는 ‘서울 친환경학교급식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계약재배 현황, 학교급식 공급실적, 현장 실사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오는 9월 2학기부터 이들 제품이 공급되면 친환경농산물은 연간 5000t, 감자·양파 등 원예농산물은 연간 2000t 정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코레일 전북본부 ‘녹색휴가 보내기’ 캠페인

코레일 전북본부는 31일 익산역에서 환경단체 5곳과 함께 ‘에너지 다이어트로 쿨하게! 녹색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요령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레일 전북본부, 익산시,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익산의제21 추진협의회, 익산시 새마을회 등이 함께 홍보활동을 펼쳤다. 행사는 탄소다이어트 카드 작성을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서약’과 환경보호 요령이 담긴 홍보물 전달, 기후변화 사진전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익산=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전북 서남권 화장장 임지 갈등 “강천산·섬진강 순창관광 양축으로”

김제시민 반대위원회 설치장소 정읍 이전 촉구

정읍과 부안, 고창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조성을 둘러싸고 임지 문제로 주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주로 김제 시민으로 구성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읍시 감곡면과 김제시 금산면 일대로 예정된 광역 화장장 설치 장소를 정읍 태인면 증산리 일대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혐오시설인 화장장을 인근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절차에 맞지 않다”고 들고 “정읍시 주도로 이뤄진 이번 화장장 설치 결정에 승

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인면 증산리 일대가 호남고속도로와 가깝고 국도 1호선, 30호선과도 멀지않아 인근 고창, 부안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면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주거지와 격리돼 있어 화장장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김북남 위원장은 “화장장은 정서적으로 주민생활에 부정적이고 혐오감을 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척위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식발 시위를 벌였다. /김제=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

순창군 섬진강포럼 70리 길 보전·개발방식 제안

순창군이 섬진강포럼을 통해 섬진강 70리 길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섬진강포럼은 지난달 30일 순창군 영성회의실에서 황승주 순창군수와 관계 공무원, 강변마을 주민,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 전북대학교 안득수 교수는 “강천산과 섬진강을 순창관광의 양축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연계해 농촌관광의 흐름에 맞는 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대학교 김승근 교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심의 계획을 통

해 환경을 정비하게 되면 도시민도 자연스럽게 방문할 것”이라며 마을과 지역 리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김학준 교수는 “순창고추장이라는 1등 브랜드를 최대한 활용해 발효를 테마로 하는 다양한 마을을 만들어 거점관광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토리텔링 전문기업 와이티티의 김우석 대표는 “섬진강이 간직하고 있는 많은 자원들의 스토리를 만드는 등 문화 중심의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포럼에 참석한 강변마을 주민들은 섬진강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과 자연 자원의 보전 등 복원 중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섬진강을 지키고 관광자원화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승주 순창군수는 “최근 섬진강 자전거 길 개통, 코레일과 함께하는 열차관광상품 등 섬진강에 대한 관광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섬진강의 관광자원과 강변마을 문화자원 등을 창조적으로 융합한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섬진강을 따라 산발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자원화하기 위해 매달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섬진강을 순창군 최고의 힐링휴양 자원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고창병원 인근 우일맨션에 고창읍문화경로당 개소

고창읍의 대표경로당인 고창읍분회 경로당(회장 김복동) 개소식이 지난 31일 고창병원 인근 우일맨션에서 열렸다.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 고창읍문화경로당은 우일맨션(85㎡) 1층에 한 채를 구입 리모델링을 통해 고창읍 경로당 회원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단합과 친목을 도모

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났다. 김복동 회장은 “그동안 각 면에는 면을 대표하는 경로당이 있었으나 고창읍은 높은 지가로 부지확보가 어려워 마련하지 못했다”며 “다행히 이번 기회에 회원들의 숙원이었던 고창읍분회 경로당이 문을 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전주시민 올 상반기 생활민원 81%는 소음

전주시민 일부는 ‘소음’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해 상반기 환경분야 생활민원을 받은 결과 258건의 민원 가운데 소음이 81%인 210건을 차지했다. 이어 먼지 32건, 악취 8건, 기타 8건 등이었다. 소음을 배출원별로 따져보니 공사

장 73건, 확성기가 52건이었다. 확성기 소음은 주로 상가에서 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시는 상가 밀집지역과 공사장을 찾아 보행자와 주민에게 불편감을 주는 소음을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박금석기자 전북취재본부장